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교사전문성인식과 보육효능감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Child Care Teacher Aptitude on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Recognition, Efficacy of Child Care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배문조, 박세정

영남이공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보육과

Moon-Jo Bae(moonjo@ync.ac.kr), Se-Jeong Park(sezzi721@ync.ac.kr)

요약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적성이 교사전문성인식과 보육효능감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적성 중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에서 남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나 다른 영역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 보육교사의 정보다는 보육교사직에 대한 소망과 자질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보육교사적성 중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보육교사전문성인식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수용성과 민감성, 안전관리능력이 보육효능감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자기개발이 다문화교수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져 예비보육교사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다문화교수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예비보육교사 | 보육교사적성 | 교사전문성인식 | 보육효능감 | 다문화교수효능감 |

Abstract

In child care teacher aptitude, it is identified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sociability for the infants, but it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other field and implies that compared with gender of child care teacher, desire and qualification are more important for child care teaching. In addition,, in child care teacher aptitude, it is identified that as variable, commitment for duty expressively explicates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perception, and the following things are shown as the variables to meaningfully explain the child care efficacy : creativity, self-improvement, sociability for infants, receptiveness, sensitiveness and safety management capacity significantly. Finally, it is turned out that creativity and self-improvement as main variable, expressively explains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It is suggested the necessity to instruct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to possess creativity and be able to develop themselves ,and improve multicultural teacher competencies.

■ keyword : |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 Child Care Teacher Aptitude | Teaching Professionalism Recognition | Efficacy of Child Care |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

I. 서론

우리사회는 급격한 저출산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수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증가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이 151,154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29,219명이 대폭 증가하여 23.9% 상승하였다. 그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수가 93,537명으로 전체 아동수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만0세~5세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혼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발달과 적응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차별 없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보육효능감 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문화교수효능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비보육교사 시기부터 우수한 보육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직은 인간을 가르치고 기르는 성스러운 직업으로서 특별한 자질과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시간을 보육교사와 함께 보내는 영유아들은 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보육교사는 단순 돌봄 제공자가 아닌 전문직 교사이어야 하기에 예비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사효능감 연구[3-5]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신념 및 교사 전문성 인식과 관련한 연구[6-10]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교사효능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도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전문성 인식을 알아본 최근 연구들[2][11-16]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은 전문성 인식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의 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인식 정도는 역할수행 뿐 아니라 직무만족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전문성 인식 정도는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 교사효능감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7]. 이처럼 예비교사의 인성적, 전문적 자질 함양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직교사에 비해 예비교사 대상의 교사효능감, 다문화교수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7]은 보육효능감을 '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신념'이라고 정의 내렸고, [18]의 연구를 보면 교사의 만족과 평온함, 자신감과 낙관적인 사고가 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19]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교실에서의 행동과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 하였고, [21]은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유아의 행동과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려 하고, 유아를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참여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로서의 적성이 보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지의 여부가 이들이 향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므로[22] 다문화교수효

능감에 대한 연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3]은 다문화교수효능감을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 및 그들의 학업과 발달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이며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교사의 자신감으로 설명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유아교사 대상의 국내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다문화교육 태도, 다문화 감수성의 수준에 대한 조사연구 [23-25]와 같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도의 관계를 본 연구[26]와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27]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2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교육이해의 영향을 받으며,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교사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교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자기효능감, 감정이입, 다문화 교육이해, 다문화 감수성 등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며[27] 보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방향에 대한 신념인 보육효능감과 함께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교사의 전문성인식, 보육효능감,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보육교사적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여 활발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적성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적성이 교사 전문성인식, 보육효능감, 그리고 다문화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적성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교사 전문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소재 4개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보육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4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무성의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총 4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66	15.8
	여	352	84.2
연령	19세 이하	140	33.5
	20-22세이하	177	42.3
	23세이상	101	24.2
학년	1학년	127	30.4
	2학년	170	40.7
	3학년	121	28.9
	전체	418	100.0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변인	문항수	신뢰도
보육교사적성	긍정적 정서	3	.69
	창의성과 자기개발	11	.87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9	.90
	업무에 대한 소명감	10	.88
	영유아에 대한 수용성과 민감성	11	.89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5	.77
	대인관계능력	6	.82
교사 전문성인식	직무전문성인식	10	.87
	보육교사 지위인식	5	.79
	보육중요성 인식	2	.72
보육효능감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유아지도 유능감	12	.90
다문화 교수효능감	일반생활 교수효능감	5	.79
	수업기능 교수효능감	5	.81
	인간관계 교수효능감	4	.84

보육교사적성에 대한 척도는 [2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긍정적 정서 3문항, 창의성과 자기개발 11문항,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9문항, 업무에 대한 소명감 10문항, 영유아에 대한 수용성과 민감성 11문항,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5문항, 대인관계능력 6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69, .87, .90, .88, .89, .77, .82이다.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3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직무전문성인식 10문항, 보육교사지위인식 5문항, 보육중요성 인식 2문항으로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87, .79, .72이다.

보육효능감 척도는 [17]이 사용한 척도로 보육상황에서의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및 유아지도에 대한 유능감에 대한 내용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값은 .90이다.

다문화교수효능감은 [22]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일반생활 교수효능감 5문항, 수업기능 교수효능감 5문항, 인간관계 교수효능감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79, .81, .84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MANOVA와 Schaffé의 사후검증법,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육교사적성의 하위변인 가운데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F=16.255,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M=3.80$)이 남학생($M=3.46$)보다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보육교사의 적성차이를 보면 긍정적 정서($F=4.443, p<.05$), 창의성과 자기개발($F=6.844, p<.001$), 수용성과 민감성($F=3.169, p<.05$), 대인관계능력($F=4.294, p<.05$)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용성과 민감성은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에서는 20~22세 이하 학생들($M=3.20$)보다 23세 이상의 학생들($M=3.47$)이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3세 이상의 학생들이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복이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자기개발에서는 19세 이하($M=3.47$)와 20~22세($M=3.41$)보다 23세 이상($M=3.6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은 학생들이 창의력이 높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20~22세 이하($M=3.47$)보다 23세 이상($M=3.64$)이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동료교사나 학부모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보육교사적성의 차이를 보면 긍정적 정서($F=5.015, p<.01$)와 대인관계능력($F=5.142, p<.01$)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

성별	N	보육교사적성						
		긍정적 정서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업무에 대한 소명감	수용성과 민감성	대인관계 능력	안전관리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66)	3.40 (.85)	3.49 (.57)	3.46 (.70)	3.82 (.56)	3.55 (.53)	3.63 (.59)	3.53 (.61)	
여 (352)	3.31 (.75)	3.49 (.56)	3.80 (.62)	3.87 (.59)	3.61 (.53)	3.55 (.54)	3.53 (.55)	
F	.691	.011	16.255***	.325	.673	1.206	.005	
연령	19세이하 (140)	3.38 (.81)ab	3.47 (.57)a	3.78 (.73)	3.88 (.58)	3.63 (.53)	3.62 (.56)ab	3.53 (.56)
	20~22세 이하 (177)	3.20 (.78)a	3.41 (.55)a	3.72 (.65)	3.81 (.60)	3.53 (.52)	3.47 (.54)a	3.48 (.57)
	23세이상 (101)	3.47 (.65)b	3.66 (.52)b	3.75 (.51)	3.92 (.56)	3.68 (.54)	3.64 (.53)b	3.64 (.54)
	F	4.443*	6.844***	.356	1.330	3.169*	4.294*	2.694
학년	1학년 (127)	3.48 (.78)a	3.53 (.56)	3.78 (.73)	3.91 (.54)	3.64 (.53)	3.69 (.55)a	3.58 (.56)
	2학년 (170)	3.33 (.72)ab	3.47 (.56)	3.68 (.61)	3.80 (.60)	3.57 (.54)	3.50 (.54)b	3.53 (.55)
	3학년 (121)	3.17 (.78)b	3.48 (.57)	3.81 (.60)	3.88 (.59)	3.60 (.52)	3.52 (.54)b	3.49 (.58)
	F	5.015**	.538	1.745	1.327	.591	5.142**	.708

*p<.05, **p<.01, ***p<.001
a, b : Schaff 의 사후검증

2.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먼저 독립변수들이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VIF값을 확인한 결과 1.291에서 4.304로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즉 보육교사의 적성 하위요인 가운데 ‘업무에 대한 소명감’(β=.504, p<.001)과 ‘대인관계능력’(β=.179, p<.01)이 보육교사전문성 인식의 하위변인 중 직무전문성 인식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전문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2%였다.

표 4.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전문성 인식					
	직무전문성인식		교사지위인식		보육직중요성인식	
	B	β	B	β	B	β
긍정적 정서	-.047	-.063	.085	.078	.113	.105*
창의성과 자기개발	.119	.118	.136	.091	.165	.113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007	-.008	.092	.071	.092	.072
업무에 대한 소명감	.489	.504***	-.532	-.372***	-.357	-.255**
수용성과 민감성	.043	.082	.189	.121	.255	.166
대인관계능력	.185	.179**	.179	.118	.191	.128
안전관리능력	-.107	-.106	.153	.103	-.045	-.031
F	44.633		5.911		6.151	
R ²	.42		.08		.080	

*p<.05, **p<.01, ***p<.001,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인식의 하위요인 중 교사지위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업무에 대한 소명감’(β=-.372, p<.001)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전문성에서 교사지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였다.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인식의 하위요인 가운데 보육직중요성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업무에 대한 소명감’(β=-.255, p<.01)으로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보육중요성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였다.

3. 보육교사적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적성 하위요인 가운데 ‘창의성과 자기개발’(β=.275, p<.001),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β=.127, p<.05), ‘업무에 대한 소명감’(β=-.163, p<.01), ‘수용성과 민감성’(β=.313, p<.001), 및 ‘안전관리능력’(β=.136, p<.05)이 보육효능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7%였다. 즉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

한 친화력, 수용성과 민감성 및 안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았으며, 업무에 대한 소명감은 낮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육교사적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효능감	
	B	β
긍정적정서	.043	.062
창의성과 자기개발	.264	.275***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105	.127*
업무에 대한 소명감	-.150	-.163**
수용성과 민감성	.315	.313***
대인관계능력	.024	.025
안전관리능력	.130	.136*
F	54.648***	
R ²	.47	

*p<.05, **p<.01, ***p<.001

5.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수효능감					
	일상생활 교수효능감		수업기능 교수효능감		인간관계 교수효능감	
	B	β	B	β	B	β
긍정적 정서	.018	.024	.007	.010	-.013	-.015
창의성과 자기개발	.320	.316***	.477	.467***	.238	.212**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143	-.163*	.020	.023	.106	.109
업무에 대한 소명감	-.043	-.044	-.166	-.169*	.030	.028
수용성과 민감성	.226	.212*	.159	.148	.275	.233**
대인관계 능력	.086	.083	-.008	-.007	-.022	-.020
안전관리능력	.114	.113	.002	.002	.055	.050
F	23.167***		18.762***		24.913	
R ²	.27		.23		.29	

*p<.05, **p<.01, ***p<.001,

다문화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일상생활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창의성과 자기개발’(β =.316, p<.001),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β =.163, p<.05), ‘업무에 대한 소명감’(β =-.044, p<.05), ‘수용성과 민감성’(β =.212, p<.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였다. 즉 창의성과 자기개발과 수용성과 민감성이 높을수록, 반대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과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기능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창의성과 자기개발’(β =.467, p<.001), ‘업무에 대한 소명감’(β =-.169, p<.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였다. 즉 창의성과 자기개발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 가운데 수업기능 교수효능감이 높았으며,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수업기능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 하위변인 중 인간관계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창의성과 자기개발’(β =.212, p<.01), ‘수용성과 민감성’(β =.233, p<.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였다. 즉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잘할수록, 수용성과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간관계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적성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적성이 교사전문성인식과 보육효능감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예비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적성을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적성 하위변인 중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한 [31]의 결과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친밀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즉 영유아를 좋아하고 영유아와 놀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영유아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친화력에서는 여학생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돌봄이 중요시되는 보육현장에서 여성이 타고난 양육자라는 인식이 내면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3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을 여성분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와의 친화력을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보육교사로서의 적성에 차이가 없으므로 남학생도 보육현장에 교사로 진출했을 때 교사로서의 자질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 영유아교사로 남자교사가 미비하나마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현장에서도 남녀차이를 없애고 남자보육교사도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23세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가 높았고 창의성과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큰 연령 차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보다 평소에 긍정적 사고가 더 많았으며 보육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과의 관계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협력을 연구한 [3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들은 연령보다는 경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긍정적 정서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긍정적이고 2, 3학년보다 대인관계 능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연령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결과와는 다른데 학년의 증가가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 1학년만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보육교사와 관련된 수업을 한 학기만 수강한 상태이므로 이들이 보육교사적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시기는 대인관

계의 폭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거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34]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육교사적성이 보육교사전문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직무전문성인식은 높으나 교사지위인식과 보육교직중요성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소명감은 의무와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사로서의 책임감, 교사직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보육교사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로서의 소명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재 보육교사직의 지위가 낮음을 인식하고 아울러 ‘보육교사직이 존경받는 직업이다.’와 ‘주변사람들이 보육교사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준다’와 같은 보육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직이 매우 전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사직이 그러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소명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적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창의성과 자기계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수용성과 민감성 및 안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계발에 적극적이며 영유아와 잘 지내고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유아를 지도하는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로서 부족한 자질은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은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교육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육교사 적성 가운데 업무에 대한 소명감을 낮을수록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에 대한 소명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식사하던 중에 기저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편입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어 척도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육 효능감과의 일관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보육교사적성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잘할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많은 예비보육교사들의 경우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인정하고 지도하는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수용성과 민감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교수효능감과 인간관계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에게 매우 반응적이고 영유아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알려주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과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일상생활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좋아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교사적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후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교사전문성인식, 보육효능감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보육교사적성 가운데 창의성과 자기개발, 업무에 대한 소명감 및 수용성과 민감성, 대인관계 능력이 주요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적성에 따라 보육효능감 및 다문화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보육교사를 양성할 때도 예비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고 보육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역할갈등이 심리적 복지와 관련이 있으므로[35] 교사의 적성과 자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부족한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본다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보육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적성을 조사하여 실제로 적성과 보육효능감 및 교수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보다 확장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사에게 중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육교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과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현시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아동들과 상호작용하고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한 교사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적성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관한 보다 확장된 연구를 위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통계현황, 행정안전부, 2011.
- [2] 강란혜,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71-88, 2006.
- [3] 김민정,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 남미경, “예비보육교사의 교사역할인식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보육실습기관 관련 변인의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1권, 제6호, pp.177-198, 2006.
- [5] 성은현, 조경자, “예비 유아교사의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 창의성 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2권, 제3호, pp.31-51, 2005.

- [6] 권혁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경인지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7] 김남희,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85-114, 2009
- [8] 송지연, 서소정, "예비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및 교사전문성 인식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4호, pp.293-321, 2011.
- [9] 표갑수, 백선희, "보육인력(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및 전문성 유지환경에 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권, pp.57-96, 1999.
- [10] J. Gorrel and Y. S. Hwang, A study of Efficacy among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Vol.28, No.2, pp.101-105, 1995.
- [11] 김대영,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김유진,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3] 신장미, *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4] 오연주, 한유미, "스웨덴과 한국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6권, 제2호, pp.139-156, 2005.
- [15] 이경,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수행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6] 최진령,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관한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7] 한정환,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pp.283-301, 2003.
- [18] 김경희, 이미나, "교사의 보육신념 및 정서안정성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정책연구*, 제5권, 제1호, pp.25-44, 2009.
- [19] 이채호, 고태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보육효능감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49-70, 2009.
- [20] 김순혜, *유치원 교사의 성격특성과 역할수행능력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1] 안상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교사-유아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2] 김종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교수전략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77-283, 2009.
- [23] 최충옥, 모경환, "경기도 초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pp.163-182, 2007.
- [24] 김옥순,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pp.193-217, 2008.
- [25] 윤현숙,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제12권, 제1호, pp.415-430, 2008.
- [26] 김영옥, 이규림,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도의 관계:다문화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pp.197-223, 2012.
- [27] 정혜옥,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pp.309-329, 2012.
- [28] 이정순,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칼빈논단*, 제30권, pp.605-631, 2011.
- [29] 김혜경, *보육교사를 위한 적성검사개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0] 김지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

과 역할수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31] 이정, 이순목, “다면적 성격검사 척도 반응의 성차분석”, 한국심리학회, 제28권, pp.263-282, 2009.
- [32] 이나미, 조정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5권, 제4호, pp.299-322, 2008.
- [33]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3권, 제5호, pp.71-89, 2012.
- [34] 권석만,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42-57, 1994.
- [35] 장성화, 권경, 변길희, 최성열, 박영진, “보육교사의 역할갈등,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2권, 제11호, pp.539-548, 2012.

박 세 정(Se-Jeong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이상 및 복지전공(문학석사)
 - 2008년 2월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학, 보육 및 교사교육 콘텐츠, 영유아 교육

저 자 소 개

배 문 조(Moon-Jo Bae)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노인복지, 다문화 교육, 아동복지